



19일 한전KDN 등 이전 공공기관들의 신사옥 건립 공사가 한창인 나주 빛가람도시에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대형 크레인이 우뚝 서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16개 공공기관 이주 나주에 신도시 사람 물리고 7만여명 일자리 생겨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10)

공동혁신도시 ① 지역발전 새전기 '빛가람 도시'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해 나주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도시) 조성 공사가 올 해 마무리되면, 지역 발전을 위한 새 전기를 맞게 된다. 전문가들은 빛가람도시 조성으로 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7만5000명의 고용유발, 연간 지방세 수입 230여억원 등의 직·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의 전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빛가람도시의 전망과 발전 방향 등을 5회에 걸쳐 진단한다. <관련기사 3면>

현재 빛가람도시 조성 공사가 한창인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에서는 이전 기관들의 신사옥 건립 공사가 한창이고,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처음으로 신사옥 공사를 마치고 '나주시대'를 연 뒤 최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도 이전을 완료했다. 올 상반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전파진흥원, 전파연구원,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사옥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한전 등의 기관이 신사옥 공사를 마무리한다.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도 나주로의 이주를 본격화한다. 애초 여수를 포함한 빛가람도시에 16개의 공공기관이 이주할 예정이었지만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의 나주 이주가 확정되면서 광주·전남으로 옮겨오는 이전 기관은 17개로 늘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전 예정 2015년 6월)과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2015년 12월) 등 2곳을 제외하고는 15개 공공기관이 올 안에 이전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한전 등의 기관이 신사옥 공사를 마무리한다.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주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빛가람도시 건설기간 중 8조574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5270명의 고용유발효과

신사옥 건립 마무리 공사
15곳 올 안에 이전 완료
8조5000억원 생산유발
지방세 수입 234억원

과가 있고, 건설 후에도 생산유발효과는 1조113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761명에 달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34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반시설 공사도 마무리 단계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100% 완료됐고, 조경공사와 신호등 공사 등 단남지구 등도 조만간 입주를 시작하는 등 제 모습을 갖추가고 있다. 빛가람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아파트는 평균 2.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다 팔렸다. 이전기관들이 차질없이 나주로 옮겨오고, 덩달아 상가와 아파트 등이 분양되는 등의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빛가람도시가 하나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빛가람도시의 인구 유입효과는 호남권 전체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난해 호남 인구는 처음으로 세습이주가 본격화된 충청권에 추월당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유권자 수가 늘 만큼 국회 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주에 따라 이들 기관과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대거 이주하기 때문에 지역 농어촌에도 활기를 불어 넣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 기관들은 광주·전남의 성장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빛가람도시가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물리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오광록기자 kroh@

본사 주최 광주 유아교육 선진화 워크숍 ▶13

또... 시 공포

2년 8개월만에 고창·부안서 발병...전국 확산 우려

전남·북 축산 차량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첫 발동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 첫 '고병원성 H5N8'형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피해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창과 인접한 장성과 영광 등에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면서, 광주와 전남·전북에 축산 관련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 국내 처음으로 발동했다. <관련기사 2·6·11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는 19일 "지난 17일 고창군 신림면 한 오리 농장과 부안의 한 오리농가의 시료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AI H5N8형으로 확인됐고, 18일에도 부안의 다른 오리 농가에서 의심 시료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또 AI가 발생한 고창 농가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동림저수지에서는 지난 17일 1000여 마리의 가창오리가 무더

기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 방역 당국이 AI와의 연관성 조사에 들어갔다. 만약, 가창오리가 AI 감염원으로 밝혀지면 영암도 등 철새 도래지가 많은 전남지역에서도 AI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오는 24일 이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남도는 64곳에 통제소소를 설치했고,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농가에 사료를 배달했던 차량이 전남지역 10곳의 농장에도 사료를 옮겨 주는 등 그동안 지역간 차량 통행이 잦아 AI가 확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AI 발병 농장에서 공급한 새끼 오리농장이 전국적으로 무려 24곳에 달해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서는 등 긴장하고 있다. 다행히 AI 발병 농장에서 오리를 입식한 전남지역 농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



전북과 광주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로 이 지역에서는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 14만여명, 축산 차량의 이동이 금지된다. 한편 이동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

시중은행 고객정보도 대량 유출

국민·롯데·농협카드 1억400만건...2000만명 피해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에 이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민감한 고객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8면> 이번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재운 금융위원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와 연예인 등 20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대량으로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19일 개인 정보 유출 혐의로 국민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감사에 착수했다. 농협카드와 연계된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결제은행까지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사실상 국내 모든 은행의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셈이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의 지난 17일 오후부터 정보 유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개인 정보가 모두 빠져나갔다

며 항의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10년 전에 카드를 해지했거나 카드를 만든 적도 없는데도 개인 정보가 몽땅 유출됐다는 신고가 밀려들고 있다. 이들 3개 카드사 고객 중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 정보 유출 피해자만 최소 2000여만명에 추산됐다. 카드사 회원만 따지면 1500여만명 수준이지만 국민은행처럼 정보가 유출된 계열사 고객까지 합친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우리나라 성인의 개인 정보가 모두 노출된 셈이다. 박세준 금융원 부원장은 "이들 카드사에서 1억400만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은행별로 롯데카드와 농협카드가 각각 2000만건, 국민카드는 4000만건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엔 빠져나간 카드 개인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 계좌, 신용한도금액, 카드 유효 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해 어떠한 금융 사고도 가능한 수준이다. 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거의

모든 부처 장·차관, 기업 최고경영자, 국회의원, 연예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스톱시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등의 카드사 사칭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3개 카드사에 대해 기존 전용상담창구 외에 일반 콜센터도 24시간 가동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고객이 희망하면 신용카드를 즉시 재발급하도록 하고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주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region.go.kr

대한민국 지역민을 위한 행복정책,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HOPE

지역민 중심의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지역민의 행복이 대한민국 행복의 시작입니다.

- Happiness 주인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험
- Opportunity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
- Partnership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
-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희망프로젝트, 지역발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